

3》졸업식 사진 명소



4~11》학부·대학원 졸업자 명단



12》여러분의 1학년은 어떠셨나요?



평화의 전당에서 새로운 출발을

사회의 첫 발을 떼는 전기 학위수여식이 13일 열린다. 사진은 서울캠퍼스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다. 대학생으로서의 마지막 등교길을 축하한다. (사진=커뮤니케이션 센터)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오늘 13일 서울캠퍼스(서울캠) 평화의 전당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선승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서울캠 학부 2,093명, 국제캠 학부 1,755명 등 총 3,848명이 졸업한다. 각 단과대학별로는 간호대학 187명, 경영대학 366명, 무용학부 45명, 문과대학 163명, 미술대학 54명, 법과대학 21명, 생활과학대학 112명, 약학대학 91명, 음악대학 94명, 이과대학 238명, 자율전공학과 14명, 정경대학 380명, 한의과대학 99명, 호텔관광대학 229명, 공과대학 494명, 국제·경영대학 3명, 국제대학 98명, 동서의과학과 8명, 생명과학대학 129명, 예술디자인대학 260명, 외국어대학 202명, 응용과학대학 108명, 전자정보대학 245명, 체육대학 208명이 학사모를 쓴다.

일반대학원 박사 208명과 석사 535명,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2명과 석사 59명,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107명,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 79

명, 특수대학원 박사 18명과 석사 506명도 학위를 받는다.

우수 졸업자에게 수여되는 총장상의 영예는 서울캠 김동섭(물리학 2011) 씨 외 13명, 국제캠 강남은(전자공학 2014) 씨 외 9명으로 총 22명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 대학장상 서울캠 9명, 국제캠 9명이 수상했으며, 우등상은 서울캠 36명과 국제캠 42명이 수상했다.

서울캠 총장상 대표 수상자인 김동섭(물리학 2011) 씨는 “저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부모님과 저를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사를 표한다”며 “대학생활의 마무리가 좋은 만큼 이 기세를 몰아 대학 밖으로 나가서도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국제캠 총장상 수상자 중 한 명인 강남은(전자공학 2014) 씨는 “4년 동안 휴학도 하지 않고 매 학기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진짜 졸업의 순간이 다가 온 것 같아 아쉽지만 좋게 떠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캠퍼스 졸업가운 대어 일정

단과대학명	대어 일정	대어 장소
간호과학대학	2.13(화) 10:30~16:00	SPACE 21 간호과학대학 121호
경영대학	2.13(화) 10:00~16:00	경영대학관 306호
무용학부	2.12(월)~2.13(화) 09:00~17:00	무용학부관 201호
문과대학	2.12(월)~2.13(화) 09:00~17:00	문과대학 각 학과(부) 사무실
미술대학	2.8(목)~2.12(월) 09:00~17:00	미술대학 행정실 203호
법과대학	2.5(월)~2.13(화) 09:00~15:00	법과대학 214호
생활과학대학	2.12(월)~2.13(화) 09:00~17:00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208호
약학대학	2.13(화) 09:00~17:00	약학관 101호
음악대학	2.12(월)~2.13(화) 10:00~16:30	음악대학 행정실 207호
이과대학	과 별 상이(학과 사무실 문의)	이과대학 각 학과 사무실
자율전공학과	2.13(화) 09:00~17:00	자율전공학과 행정실
정경대학	2.7(수)~2.13(화) 09:30~17:00	정경대학 305호
한의과대학	2.9(금)~2.13(화) 09:00~17:00	SPACE 21 한의과대학 157호
호텔관광대학	2.12(월)~2.13(화) 09:00~17:00	호텔관광대학 컨벤션(2층)

국제캠퍼스 졸업가운 대어 일정

단과대학명	대어 일정(2월)	대어 장소
공과대학	13(화) 09:30~17:00	기계공학: 공대 142-1호 산업경영공학, 원자력공학, 환경학및환경공학: 공대 142-2호 사회기반시스템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공대 146호 화학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공대 148호 총괄장소: 공대 102-1호
국제대학	13(화) 09:30~17:00	국제학관 305호
국제·경영대학	13(화) 09:30~17:00	생명과학대학관 세미나실 119호
생명과학대학	13(화) 09:30~17:00	예술·디자인대학관 각 학과사무실
예술·디자인대학	13(화) 09:30~17:00	외국어대학관 204호
외국어대학	13(화) 09:30~17:00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관 226호, 227호
응용과학대학	13(화) 09:30~17:00	전자공학: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관 101호 컴퓨터공학: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관 102호 생체의공학: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관 103호
전자정보대학	13(화) 09:30~17:00	체육대학관 212호
체육대학	13(화) 09:30~17:00	국제경영대학관 212호
동서의과학과	13(화) 09:30~17:00	

수상자 명단

● **총장상**=강남은 강홍지 공드립 김동섭 김재관 김지환 박종현 박지선 박혜정 심솔 안호성 양세민 이진영 장대한 조가비 조수연 조영현 조예담 조형우 최정우 허지현 현윤지

● **학장상**=김건희 김은지 김재원

김지환 백은 신재연 안예진 이지영 이하연 정정이 정현영 정환용 조유진 최영은 최영훈 최인수 최정욱 최지웅 한건

● **우등상**=NAGAO CHINAMI 가승순 강주영 강한솔 고병휘 고은혜 권혁우 권혜린 김경찬 김민규

김상걸 김소이 김시찬 김지환 김희진 김건중 김경준 김은비 김익재 김준영 김준현 김진규 김태성 남수경 류혜리 박수빈 박야나 박주영 박민지 박병인 박정현 박태준 부성필 서종현 서지운 서해민 석지은 성민제 신예린 심지민 심하영 안창범 안태진 양지호 오승희 오유진

윤해인 이경현 이재은 이가희 이동현 이유리 이주영 이지원 임우섭 임수빈 장미화 장예지 정다울 정지운 정한창 조선영 조준형 지율리아 차소연 최요셉 최주영 최한묵 최희은 최수빈 최유림 최진영 하슬아 한태은 허혁준 홍현석 황효은 황영주 황준권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전 사무총장과 함께 그리는 경희의 미래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유네스코의 이리나 보코바(사진·Irina Georgieva Bokova) 전 사무총장이 우리학교 명예평화학 박사가 된다. 이후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미원렉처’ 석좌교수 겸 후마니타스칼리지 명예대학장으로 임명돼 오는 새 학기부터 직책을 수행한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불가리아 출생으로 불가리아 외무장관과 부통령을 거쳐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대사를 지냈다. 2009년 유네스코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을 맡은 이후 2013년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임기를 마쳤다. 재임 시절 급격한 세계화에 따른 ‘획일성과 배제, 불균형’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소도서개도국, 전후국가와 양성평등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문맹·빈곤퇴치를 가장 시급한 프로그램이라 명명하며 국제원조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도 기여했다. 기후변화에서부터 저개발국 교육 기회 확대, 인류 문화유산 보호에 이르기까지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인류’와 관련된 폭 넓은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2016년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그는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의 이러한 관심은 한국에 4개뿐인 유네스코 석좌기관인 우리학교와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2012년 유네스코 사무총장 재임 당시 미원렉처에 초청돼 ‘유네스코에서 본 21세기 평화의 토대’ 강연을 시작으로 2015년, 2017년 PeaceBARFestival 축하 영상에 등장하기도 했다. 2012년 당시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질 좋은 교육은

평화를 위한 길의 시작”이라며 “교육은 인권 존중 의식을 일깨우고 타 문화를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나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젊은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길의 중심에 젊은이들의 비전과 열망이 있다”며 “젊은이들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과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조인원 총장은 “전례 없는 문명사적 대변혁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인류를 위해 일했던 보코바 사무총장을 초빙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향한 보코바 사무총장의 열정과 기여는 우리 학교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소감을 밝혔다. 이영준 후마니타스칼리지 서울캠퍼스 학장은 “보코바 전 사무총장의 풍부한 활동 경험과 지혜는 국제기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려는 교수들은 물론 세계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우리학교는 지속적으로 창학 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라는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세계적 지도자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해왔다. 지금까지 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대통령을 비롯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앞으로 학생들은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전달을 주제로 한 대형특강, 교수들은 지속가능개발계획, 유네스코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패컬티 세미나를 만나볼 수 있다.



(사진=커뮤니케이션 센터)

알림

졸업 후에도 학교 소식을 받아보세요!

대학주보 구독 신청 02-961-0093~4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신청 khad3070@khu.ac.kr

미디어센터 mediakhu.ac.kr

인터넷 대학주보 media.khu.ac.kr/khunews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khunews